

## 定期理事會



제 6 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 월 25 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玠會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전회 회의록승인의 건에 이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에는 부회장취임승인 신청건을 비롯해서 체육행사 실시, 자격사제도의 합리성 검토 조사서 제출, 건축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개정(안)의견서 제출, 식수헌금기탁, 공사감리에 대한 간담회 개최, 회원간담회, 4월말 현재 자금현황등이 차례로 보고되었다.

이어서 부의안전토의에서는 협회홍보안내문신문게재의 건을 비롯해서 설계경기 운용위원 추천 및 회비징수의 건, 건축사윤리 현장제정, 순회작품전시회 심사위원 선임의 건, 제규정개정(안)승인의 건등이 논의된데 이어 기타사항이 다루어졌다.

## 會員 간담회 개최

### 工事監理에 대한 의견 교환

공사감리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한 회원간담회가 지난달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玠會 회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회원들은 공사감리에 대한 현행법규의 모순점과 시행상의 난제들을 지적하고 이의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金基壽副會長 취임

新任 金基壽 부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지난 5 월 26 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부 및 서울지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 10시 부터 시작된 이날 취임식을 겸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具玠會 회장은 인사소개를 통해 “협회 창립 17년 이래 처음으로 상근부회장이 취임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건설행정예 능통한 金副會長의 취임으로 협회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장족의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具회장은 “신임 부회장을 구심점으로 협회업무의 능동화 내지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은 물론, 회원여러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金副會長은 취임사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2천여 회원의 권익옹호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하고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 육성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임직원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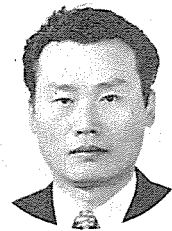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新任 金副會長은 본부 임원 및 서울지부 임원등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어 간부직원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金副會長은 지난 4월 28일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선임과 관계당국의 인준을 거쳐 이날 취임식을 갖게 되었다.

이자리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설계자가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방안을 비롯해서 종합사무소 제도의 폐지, 감리창구의 일원화, 주택 사업자들이 방계 계열의 종합사무실설치운영으로 인한 감리비 하락 방지책 강구,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 감리비의 예치제도등이었



□ 具玠會 회장으로 부터 任命狀을 받는 新任 金基壽 부회장(右)



### ◇ 主要經歷 ◇

- 1930년 9월 3일 충북 충주생
- 서울大 法大 (54년 3월)
- 서울大 行政大學院 (65년 2월)
- 건설부 사무관 (61년 10월)
- 건설부 관리국 건설행정과장 (68년 11월)
-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77년 1월)
- 건설부 관리국장 (78년 3월)
- 제 2 무임소 장관실 관리관 정책관리실장 (79년 1월)
- 정무장관실 보좌관 직무대리 (81년 5월)

다.

그밖에 감리자에 대한 권익옹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감리의 대형화를 통한 질적향상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설계와 감리의 분리안도 대두되었으며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방안도 제기되었다.

## 協會消息

기본적인 것으로는, 감리업무의 한계를 정립하고 감리비 적정금액 반기가 당장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李康植(본회감사·주·완중합설계) △安仁模(삼미종합건축사무소) △宋寬植(삼미종합건축사무소) △金寬豐(삼미종합건축사무소) △姜英一(아진종합건축) △許宗五(주·우일종합건축공사) △劉圭成(범양종합건축연구소) △盧秉龍(한웅종합건축) △朴淳澤(한성종합건축)



□ 공사감리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 會員作品巡迴展 幕올라

5대 도시 순회...장장 33일간

大賞—金正湜씨 “MBC여의도 스튜디오”

'82會員建築設計作品 巡迴展示會가 지난 14일 막을 올리고 장장 33일간의 퍼레이드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徐相喆건설부차관을 비롯 李洪培国会議員, 金報根건설부주택국장과 具琬會회장 및 역대 회장 등 내외 인사 1백여명이 참석, 5색 테이프를 끊으므로서 뜻깊은 전시회의 첫날을 장식했다.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 도시에서 차례로 개최될 이번 전시회는 건설부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예년의 작품전에 비해 규모 면에서 큰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6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58개 작품에 판넬수 총 81개가 선을 보이고 있어 회원 건축작품전으로는 최초의 메머드 전시회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출품방법 및 시상방법도 예년과 크게 달라졌는데 출품방법은 지금까지 회지에 게재된 작품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들이 설계한 작품으로 폭을 넓혔으며 시상도 건설부장관상을 추가해서 폭을 넓혔다.

전시된 작품 및 논문부문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순회작품전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 ☐ 작품부문

□ 대상=金正湜(주·정림건축) MB C여의도 스튜디오 □ 최우수상=張錫雄(아도무건축) 충무공기념관 □ 우수상=俞元在(건축연구소) 조선 인터내셔널 사옥 □ 장려상=愼國範(주·한양엔지니어링) 제네랄 호스피탈, 鄭時春(정주건축) 제명대도서관 · 金忠鎭(정주건축) 제명대도서관, 吳澤吉(건축연구소) 용인 C씨택, 金仁鎬(대아건축)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 ☐ 논문부문

□ 우수상=李鍾寬(한국은성건축) 건축물의 단열시공법 □ 장려상=鄭求殷(삼미종합건축) 도시연립주택 외부공간 구성의 문제점

지역	기간	장소
서울	6. 14~6. 19	회관전시장
부산	6. 21~6. 26	부산테파트
대구	6. 28~7. 3	시민회관
광주	7. 5~7. 10	지부회관
대전	7. 12~7. 16	시민회관

委員會

6회 편찬위원회

제 6회 편찬위원회가 지난 1일 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5월호 발간에 따른 승평과 새로 발간 될 6월호 회지 편집계획을 확정수립키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회지발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도 있었다.

6월호 편집계획은 학교작품 및 관련논문 등을 특집으로 꾸미기로 하는 한편 그밖에 회원간담회, 해외작품 등을 밀도있게 게재키로 했다.

設備研究分科

설비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尹鳳源)가 지난달 18일 오후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두번째로 회의를 개최한 이날의 모임에서는 오는 7월부터는 구체적인 연구내용등을 회지를 통해 소개 할것과 특히 7월호 회지에는 송 영위원이 전기분야에 대한 원고를 게재키로 의결했다.

또 8월 이후에는 박용한위원의 기계분야 원고를 신기로 했으며 현재 회지에 게재되는 회원작품중 1개작품에 대해서는 설비도면도 소개토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7월 3회 회의에서는 연구활동범위, 제목설정, 연구방향등을 결정키로 했다.

構造研究分科

첫번째 구조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俞景哲)가 5월20일 회의실에서 7명의 소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의 전반적인 연구방향이 설정된데 이어 건축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각 위원들의 사전 연구검토를 의결했다.

한편 전반적인 당면 연구과제로는 건축구조계산 법령 연구와 건축구조의 표준화 연구, 건축구조관계 특강,

건축구조 안전도검사 및 자문의회 활동, 건축구조계산의 방법 연구등이다.

都市環境研究分科

제 1회 도시환경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金眞一)가 5월21일 본회에서 열렸다.

위촉패 전달식에 이어 진행된 첫번째 회의에서는 장기적인 연구로서는 정책적인 안을 주제로 정해놓고, 단기 연구로서는 우선 협회 회원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하기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또 차기회의에서는 위원 각자가 나름대로 사업과제를 생각해서 통괄적으로 다룰수 있도록 과제선정 및 연구를 진행시킬 것을 논의했다.

한편 28일 열린 두번째 회의에서는 각국의 도시환경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 연구키 위해 관련 자료등을 수집,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設計圖書研究分科

設計圖書研究分科委員會(위원장 李丞雨)가 지난달 7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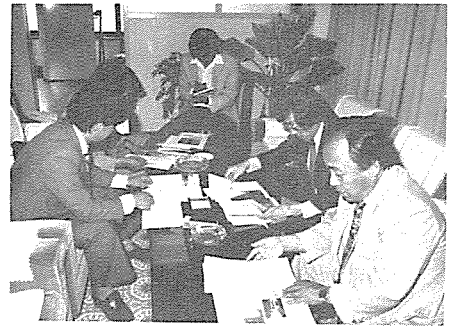
7일의 회의에서는 연구계획서 작성에 따른 제반문제등이 논의된데 이어 설계도서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李委員長은 설계도서 작성방안으로 전기, 기계등은 모두 제외하고 도면만을 작성하는 방법을 의견으로 내놓았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모색을 위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끝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具玠會회장은 각 위원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21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일본대성건설사내의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해서 참작토록 할것과 김대식위원과 김창일위원을 연구책임위원으로 위임키로 했다.

또 차기 회의부터는 연구작업에 의한 심의회의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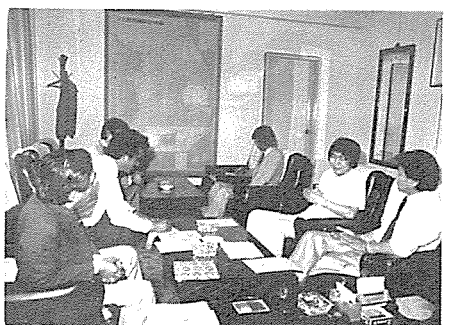
□ 편찬위원회



□ 설비연구분과



□ 구조연구분과



□ 도시환경연구분과



□ 설계도서연구분과

## 거리질서 캠페인 벌여 本部 全職員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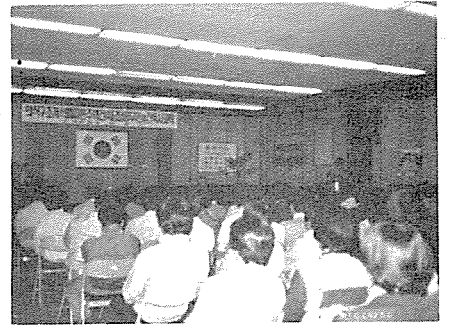
의식개혁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본회의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을 벌였다.

본회 임직원 전원은 지난달 28일 러시아워에 맞춰 혼잡한 버스정류장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일이 지도해서 밝은 거리조성에 힘썼다.

이날 이른 새벽에 전원 출근해서 준비한 피켓과 떠를 두르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질서의식을 심어줬다. 본회의 이같은 캠페인은 지난달에도 있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 본부 거리질서 캠페인



□ 인천지부교육

## 記念館 건립 誠金 기탁 인천支部 50만원 市에 전달

인천지부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모은 찬조금을 기탁했다.

동 지부는 인천항 개항 1백주년 기념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기념관 건립에 쓰도록 50만원의 기금을 마련 인천시에 전달했다.

이 기념관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하면 당시의 작전 상황 및 관계자료 등을 총망라 전시해서 史料館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지부 결의대회



□ 충북지부 간담회



□ 전북지부 새마을교육



□ 전남지부의 모내기

## 意識改革 교육 실시 인천支部 3차례 가져

인천지부(지부장 金晶洙)는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소속 회원을 비롯한 회원사무소 총무와 보조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및 해당 관청에서 각각 교육을 실시했다.

3회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난달 4일 오후 4시, 지부회의실에서 첫번째 교육이 열렸다.

43명의 회원사무소 총무 및 건축사보들은 의식개혁운동과 3대 부정성리 추방에 관한 슬라이드를 관람한데 이어 동 지부 李東武간사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두번째 교육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인천시 남구청 회의실에서 金晶洙 지부장을 비롯한 3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배격운동 및 의식개혁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에는 김용성인천직할시기획관리실장과 송영길건축과장이 각각 담당했다.

한편 5월8일의 세번째 교육은 양성환 인천직할시 건설국장과 송영길 건축과장이 회원사무소에 근무하는 총무 및 건축사보를 대상으로 의식개혁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決意大會 및 教育 실시 경기支部 회원 등 99명 참석

경기지부는 의식개혁실천 결의대회 및 의례준칙교육 등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회

원 및 임직원 등 99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가지 행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이날 첫번째 결의대회에서는 의식개혁을 실생활에서부터 실천할 것과 나아가 활성화와 계몽홍보활동을 적극 벌일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생활의 검소화와 절도를 지켜 모범적인 가정생활 내지 품위보전에 힘쓰기 위해 경조사에 따른 의례준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교육 등을 실시했다.

## 意識改革 간담회 열어

충북支部, 슬라이드 상영도

충북지부는 지난달 7일 의식개혁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날 모임에서는 의식개혁운동에 따른 세부 실천 지침 시달과 의식개혁을 보다 활성화

하고 나아가 효율적으로 지도계몽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서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의 세부지침을 담은 슬라이드를 30분간 상영해서 동 운동의 확산 내지 생활화 사례를 직접 부문별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이어 간담회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建築相談 확대 실시

### 전북支部 각 市郡에서도

전북지부(지부장 文尙植)가 금년초부터 전주시청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상담실을 보다 확산해서 운영키로 했다.

동 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주시청구내에서만 설치운영하던 건축상담실을 각 시군 민원실에도 확산해서 운영키로 하고 해당지구 회원으로 하여금 윤번제로 상주 근무토록 해서 민원인들의 건축상담에 응하도록 했다.

동 지부가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건축상담실운영은 대민봉사를 통한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품위 및 업무홍보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건축민원서류의 반려는 물론 보안요구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으며 회원의 업무처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 이를 확대실시해서 밝고 명랑한 건축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직접적인 회원참여를 도모한 것이다.

## 새마을 정신교육 참가

### 전북支部 회원 33명

전북지부 회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새마을 교육을 받았다.

전북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한 이번 새마을 정신 교육에는 모두 33명의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번교육은 거국적으로 전개되고 있

는 국민정신 개혁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도덕과 윤리관을 확립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 및 우리가 당면한 경제현실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촉구를 위한 내용이었다.

## 意識改革교육 실시

### 전남支部 슬라이드 상영

의식개혁운동의 심층화와 폭넓은 홍보계몽을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전남지부도 의식개혁교육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지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슬라이드를 통한 시청각교육과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63명의 동 지부소속회원이 참가한 교육에서는 광주시 동구청의 협조로 의식개혁의 필요성과 전개과정을 담은 슬라이드를 상영, 동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보고 이어서 金暎植지부장의 강연교육을 받았다.

## 농촌 모내기 지원도

### 전남支部 53명 회원참가

한편 동 지부에서는 모내기철을 맞아 바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을 광주시 교외 논에서 보냈다.

소속회원 53명이 참가한 이날 모내기 행사는 근교 노대부락 1천여평의 논에 모를 냈다.

“농번기 일손을 도움시다”라는 프랜카드를 꽂아 놓고 비지땀을 흘리며 열

심히 모내기를 한 전남지부 회원들은 서툰 솜씨일 망정 바쁜 일손을 돕는다는 보람으로 이날 하루를 뜻깊게 보냈다.

## 道庁서 간담회 가져

### 경남支部 体典誠金도 전달

경남지부는 경남도청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5월 22일 동지부 임직원 10명과 도청관계관 4명은 도청건설국장실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의식개혁 및 사정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전국체전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특히 이자리에서 曹台和지부장은 체전(体典)성금으로 84명의 회원들로부터 모은 2백52만원을 전달했다.

## 어린이날 誠品 전달

### 제주支部 회원 성금으로

제주지부(지부장 金守賢)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소속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학용품을 관계처에 전달했다.

동 지부 회원들은 지난 5월 5일 제 60회 어린이 날을 앞두고 학용품 10만원 상당을 마련해서 시설아동 위로잔치에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무관서인 제주시에 기탁했다.

### ♣ 도서 / 자료기증

#### “감사합니다”

#### ◆ 景觀變遷史

제프리·스잔 제리코의 「THE LANDSCAPE OF MAN」을 羅相紀교수가 번역소개한 것이다.

先史時代부터 現代까지의 환경조성을 사진과 함께 풀어간 이 책에서 환경이 「人間の 景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그 時代에 熟慮한 뒤에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서술하고 그러나 그 形式은 그것을 낳는 文明이 規定할 것이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 철학, 종교를 연구해야 한다

고 밝히고 그러므로 저자는 「文化」에 대해서 말하고자 우선 사회, 지적배경을 포착해서 기술했다.

#### ◆ 建築用語集

대한건축학회가 펴낸 건축용어집이 발간되었다.

지난 79년부터 동 학회가 국립건설연구소의 지원으로 보완작업이 추진되었고 그후 조사연구를 거듭해서 6천 200여개의 건축용어와 1천 200여개의 삽화를 정리 수록하여 용어집을 만들었다.

이 용어집은 건축계 종사자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종합건축용어집이다.

/야정문화사 / 5,000원